예수님과 시저의 승리

(요16:25~33)

25.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8.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시저의 승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승리, 그리고 시저가 또한 똑같이 '이기었노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저의 승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세상에 대

한 승리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건 아닙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세상에 대한 승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윤곽을 잡기 위해서, 시저가 이룬 승리와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33절의 이 마지막 말씀이 16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16장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BC 47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소아시아에 있는 젤라에서 폰투스의 파르니케스 2세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뒤에 로마시민과 원로원에게 승전보를 전하는데, 그 승전보 안에 있었던 선언과 같은 말이 바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구절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왔고, 파르니케스 2세를 보았고 그리고 그를 이겼다' 강력한 말이에요.
이 소아시아 젤라에서 일어난 한 전쟁에 국한된 이야기이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시저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강력하고 승리에 가득차고 확신에 가득 찬 이 세 마디의 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시저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드라마틱하고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저의 생애를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세계의 운명을 한 몸에 응축시키고 카이사르는 마침내 루비콘을 건넜다. 그리고 그는 단 5년만에 모든 것을 해냈다, 지중해 동서남북에 걸친 격렬한 전쟁에서의 모든 승리, 세기의 여인 클레오파트라와의 냉혹한 사랑, 일대 체제개혁,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코스모폴리탄의 구현,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외마디의 비명과 함께 죽어갔으나, 그후 로마는 그가 깔아놓은 궤도 위를 달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멋지잖아요?
온갖 전쟁에 다 승리를 했는데, 측근인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합니다.
삼두정치 체제의 집정관 중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폼페이우스와 함께 세 명의 집정관 중의 하나였는데 원로원이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면서 시저에게 무장해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이 원로원의 명령을 거역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가 있는 로마로 진격해 갑니다.
폼페이우스가 도망가고 결국은 로마가 시저의 1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 게 BC 49년인데, 불과 5년 만에 BC 44년까지 모든 내란을 다 종식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지중해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을 다 손 안에 장악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1인 지배하에 세상을 평정해놓고 왕이 되려 하는 이 시저를 공화정을 지지하는 측근이었던 브루투스가 살해합니다, 1년 만인 BC 43년에 죽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복해놓고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 위에서 로마는 달렸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바로, 시오노 나나미의 말을 빌리면 시저가 깔아놓은 궤도 위를 달리는 로마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하나님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러한 시저 생애의 승리와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승리를 비교해보는데, 뭔가 좀 허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저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활기에 차지도 않고, 승리에 찬 것도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사시다가 3년 동안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지만, 무슨 체제가 변혁되었다든지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시오노 나나미가 얘기한 것처럼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코스코폴리탄의 구현, 이런 거 없습니다.
시저의 생애와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밋밋하고, 공생애 3년의 기적이라든지 하는 반짝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저를 승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소아시아 젤라에서의 전쟁을 이기고 승전보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100% 반영해서 주님의 승전보를 우리가 요약하자면, 28절의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과 33절의 '세상에

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구절을 합치면 승전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시저는 말합니다, '왔다 보았다 그리고 이겼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 그리고 이겼다, 그리고 떠난다.'
주님의 승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떠나는 것에 있다는 얘깁니다.
시저는 이기고, 이기고, 이긴 뒤에 브루투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고, 이기고, 이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자, 이 두 승리를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눈에 띕니까?
시저의 승리, 지중해 동서남북의 모든 영토를 다 지배합니다, 권력을 자기 손에 거머쥡니다.
세기의 여인이라는 클레오파트라와의 사랑을 이루어내고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저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들의 총합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다 모아놓은 것이 시저의 생애였습니다.
권력, 영토, 명예, 아름다운 여인, 부, 이 모든 걸 다 갖다 모아놓은 총합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저 이상의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시저가 이루어놓은 세상, '왔다 보았다 이겼다' 이것으로 상징되는 시대정신 속에서 사시면서 시저 이상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나 봤더니 아버지께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저가 이루어놓은 이 세상의 가치를 모두 모아놓은 삶과 다른 한쪽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시저 이상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으면서, 시저가 이루어놓은 세상가치의 총합인 승리를 등 뒤로 하고 아버지를 선택하고 가셨다는 얘깁니다.
아버지를 선택하고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사람의 승리가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승리가 진짜 승리라면 다른 한 사람의 승리는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달라서.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승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승리라면 다른 쪽은 패배에요.
주님이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패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시저가 패배한 거예요.
왜 시저는 패배한 사람일까요?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를 쫓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진 자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위계승 전쟁에 휘말려서 그 전쟁의 교통정리를 해놓고 클레오파트라를 왕으로 세운 다음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의 여자로 삼았을 때, 시저는 진 겁니다.
로마제국을 1인 지배하에 딛고 섰을 때 시저는 진 거예요.
시저의 마음과 시저의 인간됨은 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봤으면 가져야 됩니다, 로마의 권력을 봤으면 가져야 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보는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의 노예로 산 사람이고, 노예 중에서 1등 노예였습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해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있습니다.
그 장미꽃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장미를 꺾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장미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고,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노예가 된 겁니다.
권력을 봅니다, 권력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혀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봅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혀버립니다.
명예를 봅니다, 돈을 봅니다, 돈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혀버립니다.
돈을 이기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색을 이기는 길은 클레오파트라를 갖는 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가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내 마음을 끌고 있는 장미꽃을 이기는 것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무색할 만큼 내 마음속에 다른 아름다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권력의 아름다움, 돈의 아름다움, 명예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움, 내 건강의 아름다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다 모아놓은 총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 모아놓은 총합의 삶을 시저보다 열 배 이상 구현할 수 있었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에 시저가 이루어놓은 모든 세상가치의 총합의 삶이 그 의미와 아름다움과 매력이 무색해지니까.
결국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왔고,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봤고, 그리고 그 모든 가치를 등 뒤로 버려버렸으므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란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을 상실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내 재산 뺏깁니다, 직장 뺏깁니다, 내 가정 흐트러져버립니다, 모든 가치 중 가장 탁월한 가치가 이 육체의 목숨이에요, 이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정한 가치들을 세상이 너희들에게서 빼앗아 갈지라도 아무것도 잃는 게 없다, 나는 지금 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고 아버지께로 떠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갖고 누리는 것보다 당장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아버지의 아름다움 때문에 돈의 아름다움도, 권력의 아름다움도, 장수의 아름다움도, 여인의 아름다움도, 모든 아름다움들이 다 색이 바래진 상태, 이 상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아버지 사이에 끼어있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했으므로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매력 때문에 시저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가치 총합의 삶 같은 것, 열배 백배로 살 수도 있지만 다 등 뒤로 하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가 그렇게 사로잡혀있는 그 하나님아버지의 매력에 직접 빠져들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될 거라는 얘기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세상이 정해준 가치, 예를 들어 돈이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생활, 돈의 1등 노예가 되는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 일평생을 질주하는 삶,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권력을 쥐었을 때 이긴 것이 아니라 1등 노예로 등극하는 겁니다.

권력, 돈, 여자, 남자, 결혼,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삶을 준다고 해도 그게 뭐 별거냐?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끌어오시고 필요 없으면 내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돈이 없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권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제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돈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남편도 없고 멋진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그 평안 속에 주님의 승리가 있고,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짐으로써 평안하려고 한다면 노예입니다, 철저한 노예입니다.

시저는 1등 노예입니다.

세상이 정한 가치가 없어서, 없어도, 없어졌는데도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신 세상에 대한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로부터 보좌까지 이루어진 주님의 영역이 있는데, 시저가 지중해 동서남북의 영토를 확장시켜가고 정복해갈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좌까지 이르시는 동안에 그 사이에 주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영역에 우리 마음이 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밖에 있는 주님이 만들어놓으신 그 영역에 거할 때 세상에 대한 승리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의 총합, 이것을 얻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얻겠다고 마음을 먹는 자체가 패배한 것이고 노예화돼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붙잡으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루신 승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승리가 내 온 마음에 마지막 하나의 세포까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승리 안에 거하는 자, 이미 승리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